

새 책

▶에밀타케의 선물(정홍규 지음)=한 경운동가이자 생태교육가인 정홍규 신부가 120여년 전 이 땅에 왔던 프랑스 선교사 에밀 타케 신부의 자취를 탐사하며 그의 삶을 다시 되살려냈다. 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며 자연과 창조, 생태와 영성, 환경과 인간에 대한 고민도 담았다. 그리고 이러한 성찰은 우리의 삶에 생태영성과 문화를 녹여내 통합생태론을 구축하자는 제안으로 이어진다. 다빈치. 2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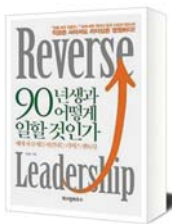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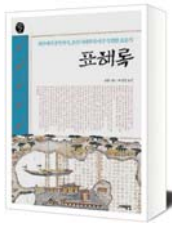
▶표해록(최부 지음, 허경진 옮김)=세계 3대 중국 기행문으로 손꼽히는 최부의 '표해록'은 조선 사대부의 제주에서 중국까지 이어진 표류기이자 견문기다. '표해록'에는 15세기 중국의 기후·산천·도로·풍속·군사·교통·도시 풍경 등이 세세히 묘사돼있다. 외국 견문보고서를 넘어 국내외에서 흥미로운 읽을거리로도 인기를 끌었다. 서해문집. 1만4500원.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했다(에른스트 페터 피셔 지음, 전대호 옮김)=과학자의 업적이 아닌, 과학자의 삶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갈릴레오 갈릴레이부터 아인슈타인에 이르기까지 책에 소개된 50명의 과학자들은 자신의 삶에서 얻은 지혜를 과학 연구에 투영했다. 저자는 과학의 영역에서 탁월한 업적을 뽐냈던 이들의 '천재적인 과학자'로서의 면모가 아닌 '지혜로운 과학자'로서의 면모에 주목한다. 해나무. 1만5800원.

▶세계는 들끓는다(놈 촘스키·데이비드 바사미언 지음, 천치현 옮김)=미국의 비판적 지식인 놈 촘스키와 독립언론인 데이비드 바사미언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진행한 12편의 인터뷰를 엮은 대담집이다. 12편의 인터뷰는 점증하는 환경위기와 핵전쟁의 위험, 이슬람 무장세력, 민주주의의 후퇴와 복지국가 해체, 인공지능 군비경쟁에 이르기까지 전지구적인 이슈들을 진단한다. 창비. 1만6000원.

▶90년생과 어떻게 일할 것인가(최경춘 지음)=시장의 트렌드를 이끄는 주요 세대가 된 90년생, 이른바 '밀레니얼 세대'인 이들과 어떻게 호흡을 맞춰 일할 것인가가 선배 사원을 비롯해 중간관리자 이상의 리더들에게 주요한 과제가 됐다. 책은 이들의 특성을 먼저 이해하고 그들을 이끌어 나갈 새로운 리더십 해법을 제시한다. 위즈덤하우스. 1만6000원.

▶장사의 기본(오카무라 요시아키 지음, 김윤희 옮김)=간판도 없고, 홍보도 하지 않는, 입구가 어디인지도 모르는 가게에 왜 손님이 줄지어 모여들까. 과열경쟁에 돌입한지 오래인 시장에서 저자는 장사에 성공하려면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메뉴와 서비스, 이벤트를 궁리하기 전에 원칙을 세우고, 손님을 위하고, 동료들 챙기는 태도, 즉 장사의 기본이 바로 서야 한다는 것이다. 부키. 1만4000원.



‘소설기계’가 써낸 디테일한 아홉이야기

김경옥의 ‘내 여자친구의 아버지들’

의문스럽고 풍자적 문장 기술
5년 만에 9개 단편 모아 발간

‘진화하는 소설기계’ 김경옥이 여덟번째 소설집 ‘내 여자친구의 아버지들’을 출간했다. ‘소년은 늙지 않는다’ 이후 5년 만이다.

그는 작가의 말을 통해 이 작품을 야구와 빗냈다. 우연하게도 9명이 선수가 뛰는 야구처럼 단편작품은 9편이며, 작가가 펴낸 여덟번째 소설집이니 8번 타자의 위치로 가늠된다. “8번에게 풀 스윙은 언감생심”이라고 몸을 낮춘다. 그러나 그의 여덟번째 타자가 풀어내는 다양한 색채의 단편들은 야구에서의 사이클링 히트의 짜릿한 쾌감을 선물한다.

표제작 ‘내 여자친구의 아버지들’은 김경옥표 소설쓰기의 정수를 보여준다. 속물 근성과 허위로 가득찬 우리 시대의 씁쓸한 풍경에 덧대어 의문스럽고 풍자적인 문장으로 그려낸다. 소설 속 주인공은 먼

접시험관을 마주하는 순간, 옛 여자친구의 아버지들을 떠올린다. 또 여자친구의 집에서 단둘이 있을 때, 여자친구의 아버지와 대면하는 장면들이 그려진다. 자신과 상대와의 대결구도에서 남자 주인공은 어쩔 줄 몰라하는 취업준비생에 불과하고 평범한 젊은이에 불과하다.

그 의문스러움은 ‘양들의 역사’에 이르러 더 뚜렷하다. 일본인으로 자주 오해 받는 주인공 나와 가공의 삶을 진짜처럼 만드는 백시기사의 위태로운 외출타기를 통해 삶의 진실과 비밀이 결국 하나의 줄기에 들어 있음을 서늘하게 드러내 보여준다.

‘고양이를 위한 만찬’은 대화로만 진행되는 독특한 스토리 구조다. 그 배경은 자식을 사고로 잃고 이민을 선택한 부부의 대화이기 때문에 대화의 내용에는 누구도 함부로 입을 떼거나 끼어들기 어려운 환경을 만든다. 그러나 작가는 인간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을 빼놓지 않는다.



‘밤낚시’는 중년이 된 고교 동창생 3명이 자신의 기억들을 붙들고 현재를 살아야 하는 삶의 지난함을 생생하고 손맛 좋은 문장들로 능청스럽게 풀어낸다.

이밖에도 ‘경마학 개론’ ‘매우 그렇습니다’ ‘수학과 불’ ‘필경사 조종년’ ‘천국의 문’ 등이 책 안에 담겼다. ‘천국의 문’은 제40회 이상문학상 수상작이다.

이 단편소설집은 정교하고 치밀한 김경옥 소설의 색채를 잃지 않으면서도 유연한 장난기까지 더해진, 좀더 진일보한 스타일을 엿볼 수 있는 작품으로 독자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다. 문학동네, 1만3000원. 백금타기자 haru@ihalla.com

기억 속에서 싸우는 두 번째 전쟁의 현장

응우옌의 ‘아무것도 사라지지 않는다’

모든 전쟁은 두 번 치러진다. 처음에는 전쟁터에서 싸워야 하고 두 번째는 기억 속에서 싸워야 한다. 미국인들은 ‘베트남 전쟁’이라고 부르고 베트남인들은 ‘미국 전쟁’이라고 부르는 전쟁의 기억을 보자. 미국 전몰자의 이름이 새겨진 워싱턴 DC에 있는 추모비는 약 137m에 이른다. 같은 간격으로 베트남 전몰자의 이름을 새겨 넣은 비슷한 추모비를 만든다면 아마 15km에 이를 것이다. 미국인들에게 베트남 전쟁이 어떻게 기억되는지 보여주는 장면이다. 그 속에서 미국 병사들은 희생자이고 300만명의 베트남인들은 전체주의자들일 뿐이다.

1971년 베트남에서 태어났고 사이공이 함락된 1975년에 해상 난민이 되어 미국으로 이주한 비엠티 응우옌의 ‘아무것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베트남 전쟁도 아

니고 미국 전쟁도 아닌 ‘그’ 전쟁의 기억을 만화경처럼 들여다본다. 미국, 동남아시아, 한국, 베트남 등 베트남 전쟁 관련 기념관과 유적지를 일일이 방문하고 베트남 전쟁 관련 문화 양식을 살펴면서 ‘전쟁을 겪은 인간이 인간답게 되는 방법’을 찾아 나섰다.

미국은 전쟁에서 패배했지만 베트남을 제외한 거의 전 세계 문화 전선에서 벌어지는 기억 전쟁에서 승리했다. 영화 제작, 도서출판, 미술계, 역사 기록물 제작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지 않은가.

전쟁에서 살인은 강자의 무기다. 반대로 죽음은 약자의 무기다. 약자의 가장 큰 힘은 강자들보다 더 많이 죽을 수 있다는 것 뿐이다. 미국은 이 전쟁에서 5만8000명 가량의 인명 손실을 입었고 한국은 5000명 정도 목숨을 잃었다. 반면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는 공식적인 전쟁 기간 동안 약 400만명이 희생됐다.

저자는 산업의 측면에서 전쟁기에 포섭된 시민들이 결국은 전쟁을 피해 도망가는 난민 신세로 전락하거나 영원히 멈추지 않을 전쟁의 지옥에 일조하는 일을 경고했다.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려면 우리 자신 안에 있는 비인간성을 직시해야 한다. 미학의 측면에서는 우리가 인간인 동시에 비인간임을 알고 복합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재현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회령 옮김. 더봄. 2만2000원. 전선희기자

이 책 정태춘 박은옥 한정출판



시대의 청춘을 관통하는 노래를 불러오며 음악 인생 40년을 맞은 정태춘 박은옥.

“피와 뼈가 되어준 40년 그들의 노래”



“그런 가수가 있다. 그의 노래를 들으면 어쩔지 그의 인생까지 전부 느껴지는 가수. 그의 노래가 너무 진짜 같아서 모두 내 얘기 같은 기분이 들게 만드는 가수. 그래서 그를 직접 만나면 어쩔지 이미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사이라고 착각하게 하는 그런 가수...”

소설가 천명관에게 정태춘 박은옥이 그런 가수다. 천 작가는 그들의 노래가 가슴의 심연까지 파고 들어 피와 뼈, 혈관과 뉴런처럼 육체의 일부가 되었다고 고백한다. ‘나를 만든 8할이 정태춘 박은옥의 노래’였다든 이들이 비단 그 뿐일까.

정태춘 박은옥 데뷔 4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박준흠씨가 엮은 ‘다시, 첫차를 기다리며’는 그런 이들이 정태춘 박은옥에게 바치는 헌사로 채워졌다. 40에서 하나를 뺀 39명의 필자들이 참여해 정태춘 박은옥 정규음반 13장에 대한

리뷰, 그들의 노래가 저마다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등 두 사람의 음악 인생을 기리는 단행본을 냈다.

정태춘은 ‘서정적인 가사와 개울물처럼 도란거리는 노래’ (박남준)를 들려주는 이였다. 그의 노래 속 고향은 가슴 저미는 그리운 존재가 아니라 차츰 싸워 되찾아야 할 투쟁의 대상이 된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 노래를 대하는 태도가 급변했다는 그가 1989년 전교조를 지지하며 진행한 전국 투어 ‘송아지 송아지 누렁송아지’는 예술의 사회 참여가 대중음악에서도 가능하다는 걸 보여줬다. 1990~96년에는 음반 사전심의제 철폐를 위한 싸움에 나섰고 2000년대에는 대추리 평화예술운동을 통해 대중음악으로 발언했다. 그들의 노래는 그 시대 청춘을 관통하는 하나의 상징일 지 모른다.

정태춘과 비슷한 시기에 첫 음반을 제작한 박은옥은 그의 아내이자 동지다. 정태춘 박은옥 두 사람의 이름이 병기된 이래 모든 음반에서 박은옥의 목소리는 정태춘의 노래가 가진 질박한 총터를 세련된 음색으로 감싸줬다. 풍자적 서사성과 처연하게 아름다운 서정성의 조화는 그대로 정태춘과 박은옥의 조화(김창남)다.

‘뮤지션에 대한 한국 초유의 헌정 출판’을 맡은 곳은 제주의 도서출판각이다. 포지션 민 총서 첫 권으로 발간했다. 2만원. 전선희기자 sunny@ihalla.com

축

수 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표창



김 대 현

농림축산식품부장관표창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신도초등학교 19회 동창회일동
무릉중 학교 19회 동창회일동**

축

수 상

국무총리표창



강 제 영

국무총리표창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대륜동연합청년회 역대회장협의회
회 장 강 원 영 외 회원일동**

축

수 상

국무총리표창



정 창 오
(본회 감사)

국무총리표창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제주동부경찰서 생활안전연합회
회 장 김 경 철 외 회원일동**

축

수 상

**제38회 대한민국미술대전 문인화부문
우수상 및 초대작가 선정**



송 복 선

제38회 대한민국미술대전 문인화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시고 영예의 초대작가로 선정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묵 랑 회
회 장 양 계 립 외 회원일동